

한중통계협력회의 결과보고서

2006. 8. 14(월)~21(월)
[중국국가통계국 방문]

한국통계대표단

◆ 목 차 ◆

I. 개요

1. 방중목적	1
2. 방중기간	1
3. 대표단의 구성	1
4. 주요일정	2

II. 주요활동

1. 중국통계국	3
2. 사천성통계국	3
3. 절강성통계국	3

III. 방중결과 및 소감

1. 주요방중 결과	4
2. 소감문(I)	5
3. 소감문(II)	11

※ 참고자료

1. 중국통계국 현황	20
2. 중국정부통계체계	21
3. 중국경제행업(산업)분류체계	36
4. 사천성경제발전통계개혁현황	52
5. 우리나라산업·직업분류체계	60
6. e-나라지표시스템	76
7. 한국대표단 세부일정	95
8. 중국통계국 접견자 명단	100
9. 중국사진	104

I. 개요

1. 방중목적

- 우리청과 중국 국가통계국은 1993년 양 기관 간 통계발전 및 통계협력 증진을 위한 통계협정을 체결한 이래 매년 공통 관심주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오고 있음
- 이번 방문 중에는 중국통계국의 분류시스템과 우리청의 분류 시스템에 대한 상호 소개를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에 힘쓰고,
- 우리청에서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국정모니터링시스템 (e-나라지표)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유사한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고자 함

2. 방중기간

- 2006.8.14.(월)~8.21.(월)

3. 대표단의 구성

- 단장 : 김해수 통계정책국장
단원 : 최봉호 지역통계과장, 강문종 제주통계사무소장,
빈현준 사무관(혁신기획관실), 유호준 주무관(통계정책과)

4. 주요일정

- 8. 14.(월)
 - 출국(인천공항 13:40분 출발→중국 북경 14:25분 도착)

- 8. 15.(화)~8. 16.(수)
 - 중국 통계국과 업무토의

- 8. 17.(목)
 - 이동 및 청두(성도) 방문

- 8. 18.(금)
 - 사천 지방성통계국과 업무토의

- 8. 19.(토)~8. 20.(일)
 - 항주 방문

- 8. 21.(월)
 - 저장 지방성통계국과 업무토의
 - 입국(중국 항주 15:50분 출발→인천공항 18:55분 도착)

II. 주요활동

1. 중국통계국

- 중국통계체계 현황
- 중국표준분류 시스템 소개
- 대한민국 통계청의 분류 시스템 소개
-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 소개

2. 사천성 통계국

- 사천성의 현황
- 사천성 통계국의 주요 추진 사업 설명

3. 절강성 통계국

- 절강성의 현황
- 절강성 통계국의 주요추진 사업과 방향

Ⅲ. 방중 결과 및 소감

1. 주요방중 결과

- 현재 중국통계국에서는 개혁 작업을 구상 중임
 - 표본조사만을 전담하던 지방조사대 조직을 최근 각 지방으로부터 독립, 국가통계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있음
 - * '06년 6월 말 중국대표단의 한국방문 시 우리청의 혁신추진 내용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함
- 중국통계법에도 응답의무 규정과 벌칙규정이 있으며, 실제 응답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 하지만, 금액이 크지않아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음
- 중국에서 산업분류와 연계표등을 전산화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 현재 우리나라의 e-나라지표시스템에 대해 중국통계국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중국통계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함
- 사천성 통계국에서는 통계제도 전반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통계제도개혁방안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

2. 소감문(I)

2006년도 중국 출장 소감

통계정책국 지역통계과장 최봉호

1993년 8월에 한국-중국 간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양자간 통계협력회의가 열리고 있었지만, 필자로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표단 멤버에 포함되는 행운을 가졌다.

뒤늦게 포함되다보니 비자 신청을 혼자 하게 되었는데, 비자를 발급받는 일이 서울에를 4번이나 갔다 왔다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임을 새삼 깨달았다.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비자노트 발급을 신청하고 받으러 2번이나, 중국대사관에도 비자를 신청하고 받으러 2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었다. 양국 간 비자면제 협정이 맺어졌으면, 비자를 받는데 드는 시간과 돈 낭비가 절약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8월14일(월) 북경공항에서의 영접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양자협력계장과 통역인 정운양씨가 마중 나왔다. 조선족으로 흑룡강 省에서 차출되어 국가통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운양씨와는 몇 번 만난 구면인지라 다시 만나 반가웠다.

저녁은 우리 대표단을 위해 잡아 준 민족호텔 내 식당에서 杜爲群 국제협력과장 주관으로 함께 하였다.

8월15일(화) 우리 대표단을 위한 환영식은 조선족으로 국가통계국 내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林賢郁 부국장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로 국가통계국내에 부국장은 모두 4명인데, 임 부국장은 일본에도 유학을 한 바 있고, 국민계정전문가이기도 한 분이다.

임 부국장은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통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도 한-중 양국간 협력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해 주었다.

대표단의 단장인 김해수 통계정책국장께서도 한국 통계청이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통계발전 방안(e-나라 시스템, 표준분류의 개정 등)을 간략히 언급하고 환영에 감사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해 주었다.

이어서 중국정부의 통계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중국의 통계법은 1983.12.8일자로 처음 제정이 되었고, 1996년에는 개정작업이 있었음을 설명 들었다.

중국 지방에서 통계활동을 하는 조직은 2원화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국과 국가통계국 직속의 조사대가 그것들이다. 조사대는 조사대상처를 기준으로 하여 농촌조사대, 도시조사대, 기업조사대 세 개의 조사대로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국과 조사대 간의 역할분담은 우리나라와 같이 센서스는 지방자치단체 통계국에서, 표본조사는 조사대가 주로 맡고 있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인 경우 매출액이 500만 元 이상이 되는 큰 기업체에 대한 조사는 省 통계국에서 맡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경제센서스 실시 시 省에서 필요로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통계국이 부담하나, 縣급이나 地區급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각 省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省에서는 때로 조사원 경비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다.

중국에서도 통계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지방에서는 현재 省 단위로만 작성되고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한 생산통계를 縣 및 地區 급단위로 만들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통계국에서는 몇 가지 통계 개혁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통계국과 조사대 간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 같다. 조사대에서는 국가통계업무만 담당토록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통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구상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상에 따라 조사대에 대한 업무감독권이 종전에는 지방정부가 업무지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국가통계국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조사대에 배치되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원은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국가통계국에서는 조사원의 확충을 위해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사원의 신분은 현

재 주로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새로 충원되고 있는 조사원은 임시직으로 할 예정이라 한다.

8월 15일(화) 저녁은 임현욱 부국장의 초청으로 上海人 호텔에서 환영만찬이 있었다. 만찬 후에는 김해수국장님의 지인인 국제청에서 대사관으로 파견나간 황재윤주재관의 안내로 女人街에 위치한 공작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한잔 할 수 있었다.

8월 16일(수) 저녁은 Feng Nailin 인구/취업통계과장 주관으로 하였다. Feng 과장은 오랫동안 국제협력과장을 하다가 자리를 바꾼지가 불과 몇 일이 안된다고 한다. 장소는 해정구 서취로에 위치한 ‘등격리탑라’라는 식당이었는데, 몽고에서의 전통 결혼식을 보여 주었다. Feng 과장으로부터 중국에서도 노동력조사를 분기별로 2007년부터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8월 17일(목) 북경일정을 모두 마치고 약 2시간 30분 걸리는 成都로 이동하였다. 공항에는 사천성 통계국 직원인 유유평씨와 徐燕씨 두 분이 마중을 하여 주었다.

8월 18일(금) 사천성 통계국에서 회의가 있었다. 사천성 통계국에는 약 170여명의 직원이, 120여개의 縣에는 각 현마다 적게는 3~4명, 많게는 10여명의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고 한다. 회의 중 통계국에서는 성장에게 매달 업무보고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달에 최소한 한번은 보고를 한다고 답변을 들었다.

환영 오찬은 사천성 통계국 바로 앞에 위치한 식당에서 있었다.

8월 19일(토) 사천성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절강성 항주로 출발하였다. 기상관계로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 늦은 시간이었지만, 절강성 통계국 직원인 李 特씨가 마중을 나와 주었다.

8월 21(월) 그동안 대표단을 수행하고 같이 다녔던 국가통계국의 Yue Renfeng씨와 정운양씨, 그리고 절강성 통계국 직원인 李 特씨와 헤어져 귀국길에 올랐다. 많은 중국의 통계국 직원들에게 신세를 많이 진 것 같다. 이 번 출장에서 북경, 성도, 항주시를 보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것 같다. 평소에 중국에 대해 많이 안 것처럼 생각했으나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이었음을 새삼 느낀다.

3. 소감문(II)

중국기행문

제주통계사무소장 강 문 중

▶ 북경...혼돈과 혼재의 도시

한 시간이 넘는 비행에 지친 무거운 눈꺼풀을 뜯 건 15분 후 북경공항에 도착한다는 기내방송이 흘러나왔을 때였다. 창밖으로 바라본 이국의 풍경! 끝없는 벌판이었다. 날씨가 부영기도 했지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넓은 평야가 펼쳐있다. 잘 정리된 경지 중간 중간에 30~40호 정도가 모여 사는 마을이 수도 없이 보인다.

이어 도심에 가까워졌는지 일반주택, 다세대, 아파트 들이 보이더니 착륙한다. 북경공항은 얼핏 보기에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 터미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의 8박 9일 동안 한중통계협력을 위한 공식행사 외에 이름난 관광지를 둘러볼 여정이 잡혀있지만 여행 중 내 개인적인 관심사는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 기행문도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우리가 묵을 호텔은 공항에서 40분 정도의 북경 중심가에 위치한다. 오래된 호텔이라 약간 냄새가 난다.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자금성과 천안문이 있단다. 호텔 앞 도로는 비교적 대로이며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다. 중국의 도로는, 몇 군데 도시를 가도 공

통적이지만, 차도와 인도 사이에 꽤 폭이 넓은 자전거 도로가 있다. 그리고 인도와 주택이나 상가 사이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비교적 녹지공간이 많은 점이 맘에 들었다. 가로수 중에는 특이한 향기가 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계수나무일거라고 한다. 계수나무가 많은 계림(桂林)에 가면 나무에서 나는 향기가 진동한다고 이번 방문단을 이끄는 국장님께서 알려주셨다.

2년 만에 북경을 방문한다는 직원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2년 전보다 차는 많아졌고 자전거는 훨씬 줄었다고 한다. 자전거는 기어가 없는, 그리고 체인 커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이 타는 스타일의 자전거가 대부분이지만 전동식 자전거와 스쿠터도 많다. 스쿠터는 우리나라의 것보다 바퀴가 얇아서 훨씬 날렵해 보인다. 남루한 옷차림에 구식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부터 예쁜 중국식 옷을 입고 스쿠터를 타고 가는 젊은 여성들까지 옛날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섞인 듯하다.

북경에서의 3박 기간 중 아침에 식전이나 식후 잠깐 주위를 둘러보며 도시의 이면을 살펴보았다. 큰 길과 큰 길을 잇는 사잇길에는 조그맣고 남루한 가게와 낡고 지저분한 건물들이 많았다. 그런 가게들 중 호텔 뒤편에 손세차를 하는 가게가 연달아 있었는데, 아침 시간에 외국회사 마크를 단 고급승용차를 세차하는 남루한 행색의 젊은이들을 보며 가슴이 저며움을 느끼기도 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뒷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

호텔 주변은 큰 건물들이 많은 비교적 변화한 거리였지만 근처 두 군데의 백화점을 빼고는 그럴듯한 상점이 없다. 뒷길에 있는 3평 이내의 조그만 상점들뿐이다. 첫날 저녁 상점에서 맥주와 생수

를 구입했는데 맥주는 한 병에 2위엔, 그러니까 260원 정도인데 생수가 이외로 비싸 500cc짜리 1병에 1위엔 50전, 한화로 약 200원이어서 우리나라 생수가격의 반 정도이다. 맥주가격과 비교해서는 제법 비싸다. 생수하면 생각이 나는 게 있다. 호텔에 비치된 에비앙생수는 중국 생수보다 25배나 비싼(호텔인 점을 무시하고) 40위엔인데 도대체 어떤 맛이기에 그리 비쌀까하고 마셔봤는데 약간 단 맛이 나지만 제주의 삼다수보다도 못한 것 같다.

택시는 기본요금이 2위엔이다. 택시 차종에는 우리나라 현대의 소나타가 엘란트라라는 차명을 달고 있는 게 보여 반가웠다. 그런데 택시들 대부분이 운전석 보호장치가 되어 있다. 뒷좌석의 승객이 운전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물론이고 조수석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차가 많다. 저런 장치가 운전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작년 우리나라 관광객 납치사건이 떠오르며 승객을 납치할 때 편리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북경의 모습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그 이면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다. 고급아파트를 비롯하여 새로 짓는 건물들은 하나같이 높고 크다. 2008년 올림픽을 준비하느라 도시를 단장하고 있고, 지하철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도 4호선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주변 농촌에서 흘러들었음직한 도시 이면을 꾸러가는 사람들 모습의 초취함과 남루함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고르지 못한 자본주의의 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같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중국의 학자가 우려하던 모습 그대로이고,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 이런 점을 알고 있는 중국의 위정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경을 떠나오기 전 점심식사를 위해 들른 평양 옥류관 북경점에서 본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느낌을 뺄 수 없으리라. 우리와 비슷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중국인과는 달리 바로 옆집의 누이 같고 조카 같은 종업원들..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가 아니냐며 일행 중 한 명이 말을 붙였을 때 ‘그런 거 없습네다. 스물 두 살입네다.’하고 스스럼없이 답하는 북한사투리만 아니라면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일행을 안내하는 중국국가통계국의 조선족 정운양 선생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 고향을 둔 할머니 할아버지 관광객들이 이 식당에 들르면 한바탕 눈물바다를 이룬다고 한다. 이 분들은 종업원들의 손을 부여잡고 북에 두고 온 가족 대하듯 안쓰러움과 하소연을 쏟아내며 심지어는 돈을 주기도 하는데, 안 받으려는 종업원과 기어코 주려는 노인들이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단다.

▶ 스촨성(四川省) 청두(城都).... 미인이 많다는 도시

북경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20분 걸려 도착한 스촨공항. 밖으로 나가니 훅~ 하고 더운 바람이 느껴진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기록했다고 하며 저녁이 다 된 시간인데도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스촨성 청두는 분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덥다고 한다.

스촨성! 미인이 많고 또 유명한 술인 ‘우량예(五糧液)’의 본고

장! 북경 고속도로 주변 광고판에서도 자주 보았고 여기도 공항 주변 높은 광고탑에 선전하고 있는 술이 ‘우량예(五糧液)’이다. 저녁을 먹으며 마신 본고장 ‘우량예(五糧液)’의 맛은 북경에서의 맛과는 다른 느낌이다.

숙소 주변 이면도로를 둘러볼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청두는 북경보다 깨끗하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가 묵은 호텔도 이제야 지은 것이어서 깨끗하고 시설도 고급스럽다. 미인이 많다하여 여성들을 눈여겨보았는데 얼굴이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다만 키가 작고 얼굴도 작고 몸매가 호리호리한데 작은 키에 비해서 다리 길이가 길다고 한다. 얼굴이 작은 여성들은 ‘어찌 저리 얼굴이 작을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작다. 요즘 얼굴이 크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큰애가 본다면 부러워서 한숨만 쉴 것 같다.

청두에서는 낙산대불(樂山大佛)과 두장안(都江堰)수리시설, 산썩뒤(三星堆)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는데 여기서도 내 관심은 관광지마다 넘쳐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닳음과 다름을 구별하여 보는 즐거움에 있었다. 낙산대불을 관람할 때는 셔츠가 땀으로 다 젖을 정도로 날씨가 매우 더웠는데 그 더위 속에서 관광객들을 싣고 나르는 인력거꾼들의 남루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

스촨성통계국 차량 운전자 때문에 간이 떨어질 뻔한 에피소드 한 토막으로 스촨성의 느낌을 마무리 해야겠다.

스촨성통계국 건물은 대도로변에 위치하며 반대차선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중앙선이 이중실선이다. 그런데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서 청사로 들어오는 건 애깃거리도 되지 않는다. 청사에서 나와

반대차선으로 갈 때 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건물쪽 차선에 차가 없을 때를 기다려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불법 좌회전을 한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걸 슛제 역주행을 감행한다. 우리를 태우고 나가는 세 번을 전부 그렇게 했으니 평소에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다. 반대차선에 차가 많으면 이쪽 차선을 이용하여 한동안 역주행을 하다 반대차선에 차가 뜸하면 그쪽 차선으로 넘어간다. 역주행을 하는 동안 앞에서는 차와 자전거와 스쿠터가 우리가 탄 차를 향해 돌진해 오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우리의 운전자!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마주 오는 차량들이 빵빵거리지도 않으면서 잘 피해준다.

▶ 저장성(浙江省) 항조우(杭州) - 서호(西湖)와 비단과 미인의 도시

스완공항을 이륙하려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대기하던 중 소나기가 내리며 천둥과 번개가 인다. 잠시 후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곳은 날씨 때문에 출발을 지연한다. 기내식을 먹으며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지체된 후에야 출발했다. 그 바람에 항조우에 도착하여 호텔에 여장을 푸니 자정이 넘었다.

우리가 묵은 호텔은 서호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호텔의 식당은 6층인데 아침해가 비치는 서호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는 기분, 정말 곳~이다.

비단이 유명하고 유명한 관광지인 서호10경이 있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생활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북경이나 청두에서처럼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항조우 여성들은 피부가 고운데다 다른 지역의 여성들과 달리 외모를 가꾸니 미인이 많다고 한다. 대로변에는 유명상표의 의류가게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우리를 안내하는 여행사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항조우는 특히 도시 주변 농가들이 부자가 많단다. 항조우라는 큰 도시를 끼고 있고 물이 풍부하니 농사 잘 되고 어류양식, 주택 임대 등으로 수입이 높아 안정된 생활을 누린다는 것이다.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농촌주택은 보통 3층이며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주택을 꾸미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 와서 몇 군데 절을 둘러보았는데, 부지 내 건물들의 배치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나무를 심거나 다른 시설물들 때문에 여유 공간이 없어 병풍처럼 두른 산을 배경으로 여유롭게 들어앉은

우리 절의 멋스러움을 전혀 느낄 수 없어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느낌은 청나라 때의 거상 호설암(胡雪巖)의 주택을 둘러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꽤 넓은 부지를 짝 채운 높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에 꾸민 정원들이 주는 느낌은 아기자기한 맛은 있으나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중국여행에서 인상에 남은 것(?) 중 하나는 어디를 가나 윗통을 벗은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밤에도 보인다. 물론 한여름이어서 밤에도 덥기는 했지만... 런닝셔츠 차림은 그런대로 봐줄만 한데 아예 셔츠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 다니는 사람을 심심히 앓게 볼 수 있으며 나이 많고 적음이 없다.

승용차는 폭스바겐, 아우디, BMW 등 고급외제차가 많고 중국 자체 브랜드 회사제품도 깔끔한 외형의 현대식 모델인데, 트럭은 우리나라의 6,70년대 모델을 보는 느낌을 준다. 고속도로를 오갈 때 통행차량이 많지 않음에 비해 갓길에 세워둔 고장난 차량이 심심치 않게 보여서 차량의 성능이나 관리 정도를 짐작하게 했다.

8일이라는 꽤 긴 기간동안 돌아보았지만 단체행동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 시장, 다양한 계층의 주택가 등을 둘러보고 싶은 맘은 다음에 배낭여행에서 채워야겠다.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쯤 중국은, 도시는 도시 주변 농촌에서 흘러들어온 젊은이들이 취직난에 허덕일 것이고 농촌은 나이든 사람들만 남아 일손을 기계에 의존함에 따라 수입의

상당부분을 농기계회사에 줘야하는 우리네 농촌의 모습을 닮아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얼마나 적절히 사회주의에 접목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지 궁금해진다.